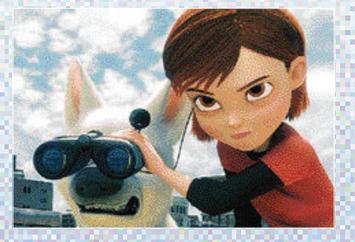
올 겨울 신나는 애니메이션 세상이 열린다

방학 앞두고 美·日·핀란드 대작 개봉 잇따라

겨울방학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속속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여름 시즌에서 흥행에 성공했던 '쿵푸 팬더' 처럼 애니메이션은 이제 더 이상 어린이 관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르가 아니다. 올 겨울엔 정통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재패니메이션, 핀란드 영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볼트

지난 2005년 개봉, 큰 인기를 모았던 '마다가스카'의 속편 '마다가스카 2'는 아프리카로 배경을 옮겨 이야기가 펼쳐진다.

뉴욕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사자 알렉스, 야생 초원을 그리워하던 얼룩말 마티, 목이 길어 멋진 기린 멜먼, 푸짐한 하마 언니 글로리아 등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 4인방은 펭귄의 음모로 아프리카 초원에 도착한다.

속편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매력은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 '마다가스카 2'에는 알렉스의 아빠인 주바, 글로리아와 사랑을 꽃피우는 하마 모토모토 등이 재미를 준다. 사자 알렉스 역의 벤스틸러 등 전편의 출연진이 그대로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애니메이션 명가' 월트 디즈니가 야심차게 내놓은 '볼트'는 '토이스토리' 제작진이 만든 3D 애니메이션이다. 최고의 TV스타인 강아지 볼트가 어느 날 우연히 할리우드 촬영장을 떠나 머나먼 뉴욕까지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리얼 액션 어드벤처. 주인공 볼트는 왕년에 사랑 받던 고양이였지만 지금은 버림받고 좀 까칠해진 미튼스, TV 매니아이자 볼트의 열혈 팬인 햄스터 라이노와 여행길에 나선다. 볼트 목소리는 존 트라볼타가 맡았다.

핀란드산 애니메이션 '니코'는 하늘을 날고 싶은 꼬마 사슴 니코와 친구들이 벌이는 모험담을 그린 작품이다.

'산타 비행단'을 찾아 날다람쥐 줄리어스와 길을 나선 니코는 떠돌이 족제비 여가수 윌마 등 여행 중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로 빠져든다.

탤런트 장근석이 주인공 니코의 목소리를 맡았으며 개그맨 김병만도 출연한다.

'작은 영웅 데스페로'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큰 귀로 주목받은 용감무쌍한 생쥐 데스페로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사람과 외부 환경을 무서워하는 다른 생쥐들과는 달리,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마을 밖으로 떠난 생쥐 데스페로는 빛과 활기를 잃은 왕국의 공주 피아를 만나고, 어둠 속의 왕국과 공주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데스페로 역의 매튜 브로데릭을 비롯해 엠마 왓슨, 더스틴 호프만, 시고니 위버 등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이 목소리 여기에 참여 기대가을 높이고 있다.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매해 가장 우수한 아동문학 도서에 수여하는 '뉴베리' 상을 2004년에 수상한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쥐기사 데스페로'라는 이름으로 출판됐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 '벼랑 위의 포뇨'(18일 개봉)도 애니메이션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물고기 소녀 포뇨와 다섯 살 소년 소스케의 우정과 모험을 그린 '벼랑 위의 포뇨'는 일본 내에서 1천 2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포뇨

작은 영웅 데스페로

마다가스카 2

주목! 이 영화

'1724 기방 난동사건'

조선시대판 조폭 대소동

조선 시대 조폭을 소재로 한 퓨전 사극이다.

싸움질이나 일삼던 양아치 천둥은 최고의 싸움꾼으로 불리는 만득이 운영하는 기방 '명월향'의 기생 설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설지 역시 자유로운 천둥에게 끌린다. 엉겁결에 조선 주먹계의 명가 양주파 두목 짝귀를 쓰러트린 천둥은 양주파의 임시 두목까지 맞게 되고 양주파와 대립 관계이던 야봉파의 두목 만득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다.

이 영화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배우들의 변신이다. 멋진 남자의 대명사 이정재는 마포저잣거리 싸움꾼 천둥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깔끔한 이미지의 김석훈도 파격적인 변신으로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여주인공 설지 역은 김옥빈이 맡았으며 이원종 등 조역들의 감초 연기도 눈에 띈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 등의 여균동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았다.

CG로 화려하게 묘사된 마포 저잣거리, 기방 명월향, 앙드레 김의 화려한 의상과 김옥빈의 춤솜씨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1724 기방난동사건	이정재, 김석훈 주연의 조선시대 주먹패들의 퓨전 활극.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프리머스 광주 제일, 씨너스 전대, 하미	
과속 스캔들	혼전 임신과 스캔들이라는 소재를 발랄하게 그린 영화. 차태현, 박보영 주연.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씨너스 전대	
쏘우 5	서로를 의심하면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 게임을 벌인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순정만화	강풀의 동명 만화를 토대로 만든 로맨스 영화. 유지태, 이연희가 순수한 사랑을 보여준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씨너스 전대, 엔터, 하미	
나의 친구 그의 아내	2006년 완성된 후, 2년 만에 세상 빛을 보게 된 영화. 아내와 둘도 없는 친구까지 지나치게 친밀한 세 남녀의 이야기를 담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무등	
눈먼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실명 바이러스'란 독특한 소재와 실명을 통해 문명이 붕괴한 모습을 담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커넥트	아시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할리우드영화의 리메이크 작품.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교감하며 사건을 해결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맥스 페인	2003년 출시된 동명의 게임을 영화로 만들었다. 아내와 아이가 살해된 장면을 목격한 형사가 의문의 살인자를 추적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미인도	조선시대 천재화가 신윤복이 여자였다는 도발적인 상상력을 담은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서양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요시나가 후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네 남자가 꾸려가는 별난 케이크 전문점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007 퀀텀 오브 솔러스	46년간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007 시리즈 22번째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소년은 울지 않는다	전쟁 고아들의 척박한 삶을 다룬 시대극. 15세 이상 관람가
엔터	
뱅크잡	경보장치가 24시간 동안 해제되는 로이드 은행을 털자고 의기투합한 7인의 일당을 그린 기상천외 범죄실화. 15세 이상 관람가
하미	
아내가 결혼했다	손예진, 김주혁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아내가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다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18세 이상 관람가
CGV(첨단), 엔터	